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nsciousness towards Savings / Consumption
and Motivation to Save on Family Saving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김정숙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Jeong Sook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nsciousness towards savings / consumption and motivation to save in explaining the proportion of savings in household. For thes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on 453 households. The results showed that (1) family income had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portion of savings in household, (2) the proportion of family savings was high in the group of families who showed positive consciousness towards savings, (3) motivation to save was associated with the proportion of savings in terms of significant relationship.

I. 서론

저축은 가계가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소득의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지출에 대한 시간선호(time preference)를 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가계는 현재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욕구와 미래에 있어서 재

정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고 재정목표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사이에서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가계저축은 현재의 소비욕구의 강도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에 대한 소득압박과 위험감소의 목표를 포함한 재정목표의 강도, 그리고 재정목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가계가 인지하고 있는 저축의

유효성과 관계가 있다(Strumpel, 1965).

자유로운 경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장래에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계저축은 첫째, 상기적인 경제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둘째로 자산을 형성하여 그것을 보유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향상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계의 저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여 장래에 보다 큰 효용을 얻게 함으로써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켜 주는 데 기여를 한다. 뿐만 아니라 가계저축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므로 경제발전에도 있어서도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1979년 18.2%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88년에는 38%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1988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36.1%였다. 1994년의 도시근로자가계의 저축율은 28.2%(통계청, 1979, 1988, 1991, 1994)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을 하락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의 대중소비사회에서는 자유선택적 소득¹⁾과 물질적 풍요의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하다. 심리적 요인인 소비자의 동기, 태도, 과거, 경험, 전망 등이 경제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佐右井眞行, 1981). 일정한 소득으로부터 얼마만큼을 지출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제동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제동기의 강도는 경제사회의 제도 및 조직에 따라, 민족, 교육, 인습, 종교, 윤리기준 등에 의해 형성되는 습관에 따라, 현재의 희망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자본, 설비,

기술에 따라,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부의 분배와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Keynes, 1936).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서 저축은 주의깊은 계획의 결과이며 현재의 욕구를 일부 포기한 결과로(Nickell & Dorsey, 1976), 균형행동(balancing act)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계는 제한된 소득으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동기를 근거로 소득을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인 저축으로 배분하게 된다. 소비는 현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지출이지만, 저축은 보다 큰 욕구를 미래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소비지출을 절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는 소비와 저축을 배분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소비지출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의 여러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을 장래의 목표 및 기대되는 여러가지 미래의 상황을 걱정한다. 소비하려는 욕구와 저축하려는 욕구가 저축과 소비의 결정과정에서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인인 저축에 대한 동기나 의식, 선호 및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은 요인이 가계의 저축을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인인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과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고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이들 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인 배경

1. 저축의 개념

저축의 개념은 복잡하며 사회 통념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貯蓄의 「貯」는 '회칙

1) 자유선택적 소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어느정도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자유선택적 소득집단은 중상 소득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질국민소득의 증가는 자유선택적 소득집단을 증대시키게 된다.

한 불건을 창고 속에 넣어 둔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蓄」은 '논 가운데 수확물을 놓아 두고 그 위에 풀 등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지붕 위에 돌 등을 놓아서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저축은 원래는 「넣어 둔다」라든가 「대비해 둔다」라고 하는 것이었다(今井光映, 堀田剛吉, 1978).

사전적 의미로서 저축은 '여투어 모아둠 또는 모아둔 돈(재화)'이다(신기철, 신용철, 1980). 가장 단순한 저축은 '物の 저장'이지만 오늘날의 화폐경제 사회에서는 단순한 '物の 저장'은 일반적으로 저축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다. 가장 넓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 「소득 중 소비되지 않는 부분」 혹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뺀 것(伊藤秋子, 1980)으로서 소득에서 소비에 사용된 부분을 뺀 잔액」(戶田正吉, 1980)이라는 것이다.

가계조사에서 이용되는 저축의 개념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혹자)으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지출로 분류되고 있다. 가계비목에서 보면 저축은 소비하여 없애 버리는 소비지출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출이라는 의미에서 자산지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 계산상으로는 저축은 「소비를 절제한 부분」으로 개념짓고 있다. 그것은 생산물의 사용면에 있어서는 생산된 것 중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고, 소득의 사용면에 있어서는 소득 중 소비지출에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전자의 저축의 개념은 고정자본의 증가와 재고품의 증가라고 하는 의미의 자본형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저축의 개념은 가계, 기업, 재정이라고 하는 경제단위 간의 경제분석이나 혹은 국민경제의 분석에서 유용하다. 그러므로 경제학에서 저축이라고 하면 소득 중에서 소비에 충당되지 않는 부분 혹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부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저축은 소비를 절제한 부분으로서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지출에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저축의 동기

저축은 투자이고 연기된 소비(淺田彰, 佐和隆光驛, 1979)이다. 소비가 현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인데 비하여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여 보다 큰 욕망을 장래 시점에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는 장기적인 가계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동기를 근거로 저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하게 된다.

가계는 다양한 이유로 저축을 한다. 연기된 소비가 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혹은 원하는 품목이 현재의 자원으로는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혹은 소득에 비해 보다 더 큰 욕구가 생길 것을 예견해서 저축을 하게 된다. 예견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한 저축에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Deacon & Firebaugh, 1981). 미래의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Nickell & Dorsey, 1976). 가계의 저축은 가까운 장래의 욕구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먼 장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단순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신념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저축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무한한 것이다(Katona, 1975).

저축동기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케인즈(Keynes, 1936)는 그의 「일반이론」 제9장에서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제유인(諸誘因)에 대하여 ① 예비(불의의 사태를 위한 준비), ② 심려(노후, 교육 등을 위한 준비), ③ 타산(장래의 가치증식의 향수), ④ 향상(장래의 생활수준의 향상), ⑤ 독립(독립의식과 생활력의 획득), ⑥ 기업(사업 운용자금의 준비), ⑦ 자존(재산의 상속), ⑧ 탐욕(인색욕의 만족) 등 8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주관적인 제동기들은 경제제도, 습관, 생활수준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하므로, 저축을 변화를 단기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는 불변으로 하고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소비자 재정에 대한 연구에서 카토나(Katona, 1964)는 ① 불확실한 미래의 긴급상황, ② 은퇴, ③ 자녀나 혹은 가족의 욕구(교육이나 다른 큰 요구), ④ 기타 목적(주택, 여행, 가구설비 등) 등의 4가지

이유로 저축을 한다고 하였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Ando & Modigliani, 1963)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상소득을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소비하고 저축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사회에서 일하는 동안 노후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가족은 그들의 유효한 자원으로부터 최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생애에 걸쳐서 그들의 소비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행동생애주기가설(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 Shefrin & Thaler, 1988)에 따르면, 개인은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Doer)와 기획자(Planner)라고 하는 양면성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기획자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획자는 미래의 소비 대신 현재의 소비에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참아야 하는 고통(심리적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재정목표에 따라 현재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저축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今井光映과 堀田剛吉(1978)은 저축의 가정경제적 기능은 저축동기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축동기로, ① 상속인을 위하여 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욕구, ② 현재와 장래의 소득흐름과 바람직한 소비흐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욕구, ③ 완전히 예견될 수 없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④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을 기대하는 유형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西垣一郎(1980)은 저축의 동기와 목적은 ① 언제 일어 날지 모르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② 예측 가능한 장래의 지출 증가에 대항하여, 그리고 ③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입 감소에 대처하는 것 등으로서, 각 가정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축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가계의 저축동기는 첫째, 예견할 수 없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둘째, 장래의 필요를 예상한 장기준비적 동기, 셋째, 비교적

단기간에 있어서 소득의 취득시기와 소비의 시기와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단기준비적 동기, 넷째, 이자나 가치상승을 향수하려고 하는 이윤동기, 다섯째, 영업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영업유지 동기, 여섯째,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유산동기 등(일본가정학회, 1993)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예비적 동기나 장기 준비적 동기는 저축의 성격상 많은 가계에 공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저축동기를 첫째, 예견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나 노후, 자녀교육 등을 위한 준비적 동기, 둘째, 장래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향상동기, 셋째, 독립된 생활이나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투자동기, 넷째, 재산을 물려주거나 돈을 쓰지 않기 위한 유산·인색동기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3. 선행 연구의 고찰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는 고전경제학이래로 경제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경제행동을 예측하려는 심리경제학(Katona, 1974, 1975)의 발달로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ela와 Schvaneveldt(1969)는 한 가정의 청소년기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경험하고 획득하게 되는 기술(skill)이나 태도 등에 따라서 저축과 소비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화폐사용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훈련과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Hefferan(1982)은 저축할 능력이 일단 충족되면 가족의 저축수준은 소득수준이 아니라 저축에 대한 선호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며, 소득이 가족의 모든 예산결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기와 경험도 또한 가족의 저축수준에 대하여 중요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Davis와

2) 행위자는 현재 소비를 추구하고 기획자는 미래 소비를 추구한다.

Schumm(1987)은 저축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축을 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저축에 대하여 덜 만족한다고 하였다.

問夕田孝夫(1979)와 李敏杓와 池英淑(1985)은 저축과 소비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 사이에는 正的 상관계수가 있으며, 저축에 적극적이고 소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록 보다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斐茂基(1979)와 박재윤(1979)은 가구주의 소득,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직업, 가족수에 따라 가계저축율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조희금(1984)은 가계의 평균 저축율과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정 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희숙(1995)은 은퇴한 노인가계의 어떤 특정한 지출비목의 소비형태는 총 가계자산 뿐만 아니라 가계가 어떠한 저축형태(자산형태)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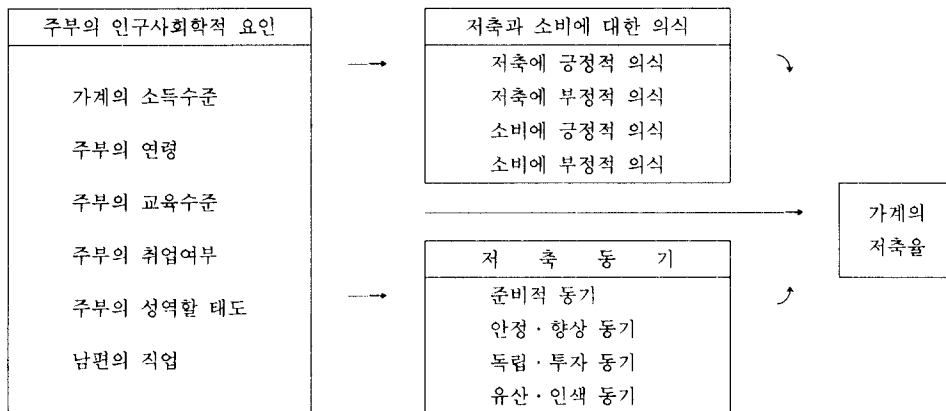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저축동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계의 저축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4)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과 저축동기는 가계의 저축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기초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에 의해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예비조사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580가구를 대상으로 95년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면접조사와 유치조사방법³⁾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한 가계, 여성가구주 가계, 저축할 능력이 안되는(저축이 없는) 가계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⁴⁾, 453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측정도구

1) 가계의 소득수준과 저축율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계의 저축율은 가계의 월평균 저축율로서 월평균 저축금액을 조사하여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저축행동은 저축유량(flow), 저축저량(stock), 저축율 등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가계의 저축율로 가계의 저축행동을 측정하였다.

2)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측정도구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間夕田孝夫(1979)와 李敏杓와 池英淑(1985)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저축에 대한 의식 8개 문항과 소비에 대한 의식 7개 문항으로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Likert)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6개로서 저축은 미덕이고 바람직하며 반드시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2개로서 무리하면서까지 저축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로서 소비는 미덕으로 돈은 기분 좋게 쓰는 것이며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인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3개로서 사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가계 저축동기의 측정도구

가계의 저축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Keynes, 1936 ; 奥村忠雄, 1960; 戸田正吉, 1980; 일본가정학회, 1993; Deacon & Firehaugh, 1981)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준비적 동기, 생활안정·향상 동기, 독립·투자동기, 유산·인색동기⁹⁾ 등 4가지 동기에 대하여 각각 2문항씩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부의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

주부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Venkatesh (1980)가 여권신장주의(feminism) 척도로 사용한 10개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여권신장주의 척도는 Kirkpatrick(1936)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을 Arnott(1972)가 10개 문항으로 개발한 것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총점이 10-36이면 전통주의형(traditionalists), 37-42이면 중간형(moderrates), 43-50이면 여권신장론형(feminists)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으로 검증되었으며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는 0.7536이었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이용된 통계적 기법은 빈도, 백분율, 일원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 등이었다.

3)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 간에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는 조사방법이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바로 응답자의 응답을 받아서 회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을 해 놓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해수해 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와 유치조사방법을 병행한 것은 응답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4) 현재 저축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5)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위하여,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저축을 하는 것이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2.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의 차이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150만원-200만원, 가계의 저축수준은 40만원-70만원, 가족구성원수는 3-4인, 남편과 주부의 학력은 고졸, 남편의 연령은 40대,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주부들은 저축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인 의식이 높고 부정적 의식이 낮은 경향을, 소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식이 낮고 부정적 의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세페의 다중범위검정을 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저축에 대한 의식을 보면, 긍정적 의식에 유의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 단위 : 만원)

구 분		빈 도	(%)	구 분		빈 도	(%)
소* 득 수 준	100미만	46	(10.2)	남 편 직 업	농어업	44	(9.7)
	100-150	112	(24.7)		자영업	88	(19.6)
	150-200	123	(27.2)		서비스직	41	(9.1)
	200-250	83	(18.3)		사무기술직	223	(49.2)
	250-300	65	(14.3)		전문직	26	(5.7)
	300이상	24	(5.3)		기 타	31	(6.8)
저* 축 수 준	20미만	71	(15.7)	저 축 율	10% 이하	30	(6.6)
	20 - 40	110	(24.3)		10 - 20%	83	(18.3)
	40 - 70	147	(32.5)		20 - 30%	98	(21.6)
	70 -100	86	(19.0)		30 - 40%	115	(25.4)
	100 이상	39	(8.6)		40% 이상	127	(28.0)
남 편 학 력	국 졸	16	(3.5)	주 부 학 력	국 졸	51	(11.3)
	중 졸	54	(11.9)		중 졸	118	(26.0)
	고 졸	210	(46.4)		고 졸	213	(47.0)
	대졸이상	173	(38.2)		대졸이상	71	(15.7)
남 편 연 령	30세 미만	50	(11.0)	주 부 연 령	30세 미만	93	(20.3)
	30 - 40세	224	(49.4)		30 - 40세	247	(53.8)
	40 - 50세	135	(29.8)		40 - 50세	92	(20.0)
	50세 이상	44	(10.7)		50세 이상	27	(5.9)
가 족 원 수	2 인	61	(13.5)	성 역 할	전통주의	146	(32.2)
	3 - 4인	31	(68.4)		중 간 형	269	(59.4)
	5 - 6인	51	(11.3)		여권신장론	38	(8.4)
	7인 이상	31	(6.8)				
취 업	유	197	(43.5)	계		453	(100)
	무	256	(56.5)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등이었으며, 부정적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직업이었다. 그러나 소비에 대한 의식에서는 긍정적 의식에는 주부의 연령, 교육

수준, 취업여부 등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정적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소득수준과 가계구성원수는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에는

〈표 2〉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의 차이

구 분	의 식	저축에 대한 의식						소비에 대한 의식					
		긍정적 의식			부정적 의식			긍정적 의식			부정적 의식		
		평 균	F	S	평 균	F	S	평 균	F	S	평 균	F	S
소 득 수 준	100 미만	20.50			5.52		a	8.04			12.48		
	100-150	21.55			5.22		b	8.21			12.82		
	150-200	21.43	1.36		5.71	1.24	ab	8.24	0.30		12.46	0.73	
	200-250	21.45			5.43		ab	8.45			12.99		
	250-300	22.17			5.13		b	8.48			12.58		
	300 이상	21.08			5.83		a	8.65			12.82		
가 족 원 수	2 인	21.36			5.71			8.93			12.41		
	3 - 4인	21.33	0.16		5.47	0.86		8.26	0.97		12.74	0.58	
	5 - 6인	21.06			5.82			8.18			12.65		
	7인 이상	21.42			5.39			8.03			13.03		
남 편 직 업	농 어 업	20.98			6.29		a	8.53			12.86		
	자 영 업	21.53			5.31		ab	8.09			12.71		
	서비스직	20.93	0.41		5.15	2.96*	b	8.10	0.67		12.54	0.23	
	사무기술직	21.36			5.51		ab	8.32			12.75		
	전문직	21.19			6.20		a	9.27			12.65		
	기 타	21.45			5.68		ab	8.26			12.39		
주 부 연 령	30세 미만	20.77		a	5.87			9.06		a	12.23		
	30 - 40세	21.73	2.89*	b	5.39	1.01		7.76	4.31**	b	12.74	0.48	
	40 - 50세	20.89		a	5.65			8.72		ab	12.73		
	50세 이상	21.26		ab	5.51			8.80		ab	12.76		
주 부 학 력	국 졸	20.38			5.77			9.26		a	12.35		
	중 졸	21.27	2.67*		5.36	0.79		7.79	2.62*	b	12.61	0.97	
	고 졸	21.64			5.52			8.06		ab	12.88		
	대졸이상	20.22			5.68			8.93		ab	12.58		
취 업	유	21.44	0.69		5.44	0.99		8.03	3.86*		12.61	0.60	
	무	21.22			5.61			8.67			12.78		
성 역 할	전통주의	21.81		a	5.60			8.05			12.76		
	중 간 형	21.13	3.79*	b	5.52	0.28		8.44	0.89		12.73	0.53	
	여권신장론	20.66		b	5.37			8.55			12.34		

1) * : $p < 0.05$, ** : $p < 0.01$

2) S : 세체의 다중범위 검정

3) a, b,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소비에 대한 부정적 의식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부들이 모두 소비에 대해서 높은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주부들이 현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돈을 쓰거나,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의 주부들이 다른 연령층의 주부들에 비하여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은 더 낮고,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등교육을 받은 주부가 초등교육이나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주부들보다 저축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긍정적 의식을, 소비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20대의 젊은 주부들이, 또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주부들이 저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부의 취업여부는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만, 성역할 태도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취업주부들은 취업주부보다 소비에 대하여 더 높은 긍정적 의식을, 전통적인 경향을 가진 주부들은 저축에 대하여 더 높은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부와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들이 다른 주부들보다 저축에 대하여 부정적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저축 동기의 차이

일반적으로 주부들의 저축동기는 준비적 동기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산·인색동기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주부의 저축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과 세계의 다중범위검정을 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준비적 동기와 독립·투자 동기에 있어서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요인이, 유산·인색 동기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계의 소득수준과 가계구성원수는 주부의 4가지 저축동기 수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생활의 안정·향상 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부의 저축동기 수준은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가계구성원수에 의해서, 생활의 안정·향상동기는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소득의 목표는 첫째가 안정이고 두번째가 여유이므로(이기춘, 1994),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문제는 모든 가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모든 가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서, 생활의 안정·향상동기는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준비적 동기의 수준은 더 낮고, 독립·투자 동기의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 것은 주부의 소득으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적인 안정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소득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적인 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Foster, 1981).

주부의 연령의 경우는, 준비적 동기에서는 30대와 50세이상의 주부가, 독립·투자 동기에 있어서는 20대 주부가 다른 연령층의 주부들에 비하여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30대 주부는 가까운 장래의 자녀 교육을 위한 준비 때문에, 50대는 자녀의 결혼자금마련과 은퇴에 대한 준비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20대 주부는 보다 나이 많은 주부들보다는 앞으로의 생활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독립·투자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에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주부가 초등교육을 받은 주부들보다 준비적 동기와 독

(표 3)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저축동기의 차이

구분	저축동기	준비적 동기			안정·형성동기			독립·투자동기			유산·인생동기		
		평균	F	S	평균	F	S	평균	F	S	평균	F	S
소득수준	100 미만	8.78			7.00			6.13			4.91		
	100-150	9.04			6.91			6.84			5.13		
	150-200	9.16	0.81		7.08	0.44		6.95	0.10		4.87		
	200-250	9.12			6.76			6.75			4.84		
	250-300	9.21			6.71			7.46			5.08		
	300 이상	9.14			6.86			7.14			5.03		
가족원수	2인	9.03			7.00			7.21			5.23		
	3-4인	9.08	0.41		6.89	0.08		6.84	0.99		4.92		
	5-6인	9.21			6.98			6.80			4.90		
	7인 이상	8.94			6.94			6.45			5.10		
남편직업	어업	8.96			6.71			6.64			5.23		
	자영업	9.22			7.26			7.06			5.21		
	서비스직	8.93	0.82		6.51	1.28		6.66	0.38		4.83		
	사무기술직	9.07			6.92			6.89			4.79		
	전문직	9.35			6.96			6.73			4.69		
	기타	8.94			6.74			6.74			5.58		
주부연령	30세 미만	8.67		a	7.10			7.75		a	4.74		
	30-40세	9.37	3.87**	b	6.82	0.73		6.66	2.61*	b	4.93		
	40-50세	8.80		a	7.01			6.63		b	5.01		
	50세 이상	9.19		b	6.93			6.27		b	5.10		
주부학력	국졸	8.57		a	6.67			6.06		a	5.49		a
	중졸	9.20	3.79**	b	6.81	1.36		7.08	2.62*	b	5.37	2.94*	a
	고졸	9.31		a	7.09			7.08		b	4.70		ab
	대졸이상	8.96		ab	6.76			6.69		ab	4.41		b
취업	유무	8.75	3.86*		6.99	0.53		7.21	3.88*		4.91	0.33	
		9.35			6.87			6.54			5.01		
성역할	전통주의	9.13			6.98			7.11			5.30		a
	중간형	9.08	0.47		6.84	0.93		6.73	1.67		4.83	3.43*	ab
	여권신장론	8.92			7.24			6.82			4.66		b

1) * : $p < 0.05$, ** : $p < 0.01$

2) S : 세페의 다중범위 검정

3) a, b,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립·투자동기수준에 있어서는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산·인생동기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들이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독립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고 장애에 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낮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남편의 직업은 유산·인색 동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전통주의 경향을 가진 주부가,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부가 다른 주부에 비하여 유산·인색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들과 성역할 태도에서 전통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아끼고 절약하여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진 우리의 전통적인 습관에 대한 의식도 여권신장형의 주부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가계 저축율의 차이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가계의 저축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세계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주부의 연령, 남편의 직업, 가계구성원수, 주부의 취업 유무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연령은 젊은 가계가, 가계구성원수는 적은 가계가, 취업 주부의 가계가 그리고 자영업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하여 높은 저축율을 나타냈다.

소득 다음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구성원의 수, 연령, 성별 등과 같은 가계구성변수이다(Prais & Houthakker, 1971). 가계구성원의 차이는 가계의 수요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가계의 소비지출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주부의 연령이나 가계구성원수의 차이는 가계저축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자영업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하여 보다 높은 저축율을 보인 것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소

<표 4>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가계 저축율의 차이

구 분	평 균	F	S	구 분	평 균	F	S		
소 득 수 준	100 미만	31.23	1.17	남편 직업	농 어 업	31.27	a		
	100-150	34.03			자 영 업	42.31	b		
	150-200	31.83			서 비 스 직	33.57	2.90*	ab	
	200-250	37.73			사 무 기 술 직	31.84	ab		
	250-300	33.62			전 문 직	29.40	a		
	300 이상	35.67			기 타	35.23	ab		
연 령	30세 미만	39.95	a	가 구 수	2 인	38.58	a		
	30 - 40세	37.11	2.77*		ab	3 - 4인	35.00	2.86*	a
	40 - 50세	30.66	b		원 인	5 - 6인	26.72	b	
	50세 이상	32.75	ab		수	7인 이상	33.16	ab	
성 역 할	전통주의	35.98	0.41	교 육 수 준	국 출	31.61	1.76		
	중 간 형	33.68			중 출	34.12			
	여권신장론	33.53			고 출	33.19			
취 업	유	34.48	9.16**		대출이상	40.54			
	무	31.27							

1) * : p < 0.05, ** : p < 0.01
 2) S : 세계의 다중범위검정
 3) a, b,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득수준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할 경우, 더 많은 소득 감소가 기대되는 가계가 가까운 장래에 호전을 기대하는 가계들에 비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이다 (Klein, 1951).

주부의 취업은 가계의 소득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평균이하인 가계의 주부의 취업은 소득분배를 더욱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나, 평균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계의 경우는 주부의 취업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Eastwood, 1985). 주부취업으로 인한 이러한 소득불평등이 가계의 저축율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가계는 제한된 소득을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가계의 소득수준은 저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가계가 처음 저축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Hefferan 1982).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 가계의 저축행동의 한 특징이다(박재운, 1979).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가계가 보다 많은 저축을 하는(Foster, 1981; Hefferan, 1982; Dans & Schumm, 1987)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같은 소득수준의 가계일지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저축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득증가와 더불어 저축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감소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저축율도 가계의 소득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까지는 계속 증가했으나 1989년부터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⁶⁾.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가계의 저축율은 소득수준 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요인인 저축에 대한 동기나 선호 및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5.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에 따른 가계 저축율의 차이

1)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과 가계의 저축율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수준의 정도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세페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수준의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백분위 점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표 5>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과 가계의 저축율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평균	F	S
저축에 긍정적 의식	상	36.15	2.79*	a
	중	31.68		ab
	하	28.13		b
저축에 부정적 의식	상	27.83	0.75	
	중	34.22		
	하	34.77		
소비에 긍정적 의식	상	34.29	0.01	
	중	34.41		
	하	34.86		
소비에 부정적 의식	상	35.13	0.25	
	중	33.42		
	하	33.47		

1) * : $p < 0.05$

2) S : 세페의 다중범위검정

3) a, b,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5>에 의하면,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에서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만이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저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나 소비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소득 증 더 많은 비율을 저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

6) 1988년에는 38%였으나 1994년에는 28.2%였다.

과는 저축에 적극적이고 소비에 소극적일 수록 보다 많은 저축을 한다는 問夕田孝夫(1979)와 李敏杓와 池英淑(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계의 저축행동은 가계에 있어서 균형행동을 반영하고 있다. 가계는 한편으로는 소비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으로 충족될 수 있을 장래의 목표와 기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Hefferan, 1982). 소비하려는 동기와 저축하려고 하는 동기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다.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저축율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은 소비하려는 동기와 저축하려는 동기가 서로 경쟁할 경우, 저축하려는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가계의 저축율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 저축동기와 가계의 저축율

주부의 저축에 대한 동기수준의 정도에 따라 가계의 저축율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세계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저축에 대한 동기수준의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백분위 점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주부의 저축동기에 있어서는 독립·투자 동기와 유산·인색 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투자 동기와 유산·인색 동기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더 높은 저축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준비적 동기나 생활안정·향상 동기는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와 경험도 또한 가족의 저축수준에 대하여 중요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Hefferan(1982)과 저축에 대한 동기⁷⁾는 저축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한 Davis와 Schumm(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6> 저축동기와 가계의 저축율

저 축 동 기		평 균	F	S
준비적 동기	상	33.81	0.93	
	중	36.72		
	하	28.97		
안정·향상동기	상	38.27	1.74	
	중	32.50		
	하	36.90		
독립·투자동기	상	35.20	3.49*	a
	중	36.17		a
	하	26.85		b
유산·인색동기	상	50.08	10.37***	a
	중	31.64		b
	하	33.94		b

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S : 세계의 다중범위검정

3) a, b,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준비적 동기나 생활의 안정·향상 동기는 높은 수준의 동기는 부여되었지만 저축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들 동기는 저축의 성격 상 대부분의 가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저축동기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계는 기본적으로 우선 장래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할 것이다. 특히 중하소득수준의 가계에 있어서 준비적 동기나 생활의 안정·향상 동기는 중요한 저축동기로서 현재의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지출을 위한 준비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저축동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현재의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는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립·투자동기나 유산·인색동기는 모든 가계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동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동기수준에 대한 강도는 가계가 어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Davis와 Schumm은 저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와 가족, 친구, 일, 교육, 지역사회, 레크레이션과 여가 등 8가지와 재정적인 안정성을 평가한 순위를 저축에 대한 동기로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등의 요인이, 부정적 의식에는 남편의 직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정적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가계의 소득수준과 가계구성원수는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젊은 주부들이,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주부들이 저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저축동기에 있어서는 준비적 동기와 독립·투자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이었으며, 유산·인색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들은 유산·인색동기 수준은 높았으나 준비적 동기와 독립·투자동기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경향을 가진 주부들이 유산·인색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안정·향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부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은 없었으며, 가계의 소득수준과 가계구성원수는 모두 저축동기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계의 소득수준, 주부의 연령, 가계구성원수, 주부의 취업 등의 요인이었다. 가계구성원수가 적고 주부의 연령이 젊은 가계가, 그리고 자영업 가계가 저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저축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에서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만이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비에 대한 의식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으로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가계의 저축율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저축동기에 있어서는 독립·투자동기와 유산·인색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준비적 동기와 생활안정·향상동기는 높은 수준으로 동기부여는 되었으나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가계의 저축율은 독립·투자동기와 유산·인색동기가 강할 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저축율을 예측할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수준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과 저축동기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기보다는 저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자유재량소득액과 물질적 풍요의 증대와 더불어 가계의 소비지출을 자제할 수 있는 동기의 부여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앞으로 저축동기, 소비동기 및 저축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朴在潤, 서울 非勤勞者 家計의 貯蓄行態, 서울대학교경제논집, 17(2), 1979, 197-235.
- 2) 裴茂基, 서울 勤勞者 家計의 貯蓄行態, 서울대학교경제논집, 17(2), 1979, 161-196.
- 3)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0.
- 4) 이기준, 가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1994.
- 5) 李敏杓, 池英淑, 貯蓄 消費에 對한 規範的 意識과 貯蓄行動에 關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985, 107-121.

- 6) 이희숙, 일하는 기간 동안의 가계저축행태와 은퇴후 가계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1), 1985, 41-56.
- 7)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984, 57-66.
- 8)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79, 1988, 1991, 1994.
- 9) 今井光映, 堀田剛吉, 家政經濟學, 東京: 朝倉書店, 1978.
- 10) 間夕田孝夫, 貯蓄, 消費に關する規範的意識の分析—貯蓄行動との關聯を中心として—, 國民生活研究, 19(3), 1979, 13-36.
- 11) 淺田彰, 佐和隆光譯, 儀禮としての消費, 東京: 新曜社, 1984.
- 12) 西垣一郎, 家庭經濟概論, 東京: 明文書房, 1980.
- 13) 日本家政學會, 家庭經濟學, 東京: 朝倉書店, 1993.
- 14) 奥村忠雄, 家計支出行爲の心理學的分析法について, 大阪市立大學社會福祉論集, 8, 1960, 37-52.
- 15) 佐古井貞行, 大衆消費社會とG-カト-ナの〈消費〉概念, 國民生活研究, 2(3), 1985, 107-121.
- 16) 戸田正吉, 家庭經濟學, 東京: 酒井書店, 1980.
- 17) Ando, A. &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 55-84.
- 18) Arnott, C. C., Husbands' Attitudes and Wives' Commitment to Employ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1972, 673-681.
- 19) Davis, E. P and W. R. Schumm,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A Comparison of Low-and High-Income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1987, 247-256.
- 20) Deacon, R. E. & M. F.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1.
- 21) Eastwood, D. B.,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5.
- 22) Foster, A. C., Wives' Earnings as a Factor in Family Net Worth Accumulation, Monthly Labor Review, 104(1), 1981, 53-57.
- 23) Hefferan, C.,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2), 1982, 47-55.
- 24) Katona, G., The Mass Consumptio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4.
- 25) Katona, G.,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1974, 1-8.
- 26) Katona, G., Psychological Economics, New York: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 1975.
- 27) Klein, L. R., Estimating Patterns of Saving Behavior from Sample Survey Data, Econometrica, 19(4), 1951, 438-454.
- 28)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36.
- 29) Kirkpatrick, C., The Construction of Belief-Pattern Scale for Measuring Attitudes toward Femin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 1936, 421-437.
- 30) Nickell, P. & J. M. Dorsey, Management in Family Living, 4th edition, New Delhi: Weley Eastern Limited, 1976.
- 31) Phelan, G. K. and J. D. Schvaneveldt, Spending and Patterns of Adolescent Sibl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61(2), 1969, 248-249.
- 32) Prais, S. J. & Houthakker, H. S.,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 2nd im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33) Shefrin, H. M., & R. H. Thaler,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26, 1988, 609-643.
- 34) Strumpel, B., Saving behavior in Wester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65(2), 1965, 210-216.
- 35) Venkatesh, A., Changing Roles of Women-A Life-Style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1980, 189-197.